

[성가대용]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화답송 (경축이동) 2018. 09. 23

시편 126(125), 1-2ㄱ. 2ㄴ-3. 4-5. 6

(후렴) 눈물로 씨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.

1.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주실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 하-였네.
 2. 그 때 민족들이 말하였 - 네. "주님이 큰일을 하셨구나."
 저들에게
 3. 주님, 저희의 귀양살이 되돌리소서. 눈물로 환호하며 거두리라.
 네겍 땅 시냇물처럼 씨 뿌리던
 사람들

그 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-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찬 네.
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 하-였네.
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-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.